

한국기술교육대, 코트디부아르 직업교육 혁신 이끌 리더 키운다

- 교육 지도자 15명 대상 2주간 KOICA 초청연수
- TVET(직업기술교육훈련) 운영·리더십 강화, 현지 교육 적용 계획 수립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도자 리더십 및 관리 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2차 년도 과정으로, 7월 19일(일)부터 8월 1일(토)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훈련부(METFPA)와 국립직업기술교육원(IPNETP) 소속 정책 담당자, 교육기관 관리자와 교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의 관리·리더십 역량을 높여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산업화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수 목적이다.

올해 연수는 ▲학습자 중심 TVET 거버넌스 구축, ▲효과적인 교수설계 및 교수법 활용, ▲학교 리더십과 TVET 관리 역량 강화, ▲국별 보고 및 실행계획 수립 등 4개 모듈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비롯해 한국과 주요 국가의 TVET 제도 및 훈련교사 양성체계,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설계, 기업 경영과 리더십 등을 학습한다.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수요를 직업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연수에서 습득한 내용을 코트디부아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별 보고와 현지 실행계획 수립 과정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자국 직업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단계별 지도를 받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직접 작성·발표한다.

더불어 한국기술교육대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을 방문한다.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관리자인 김남호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번 연수는 단순히 한국의 직업 교육 사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국의 교육환경에 맞는 실행 방안을 직접 설계하도록 구성했다”라며 “한국기술교육대가 축적한 직업 교육훈련과 교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지속 가능한 TVET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수생 대표 블레우 필리프 앙기(Mr. Bleou Philippe Angui)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얻게 될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직업기술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라며 이번 연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KOREATECH TTI)는 2005년 개소한 이후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도미니카공화국,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인력 양성,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우리나라 직업훈련 시스템의 우수성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담당 부서	홍보팀	책임자	팀장	황의택 (010-5***76)
		담당자	담당	이혜지 (041-560-1681)
담당 부서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산학협력단	담당자	차장	장지은 (041-560-1785)
		담당자	팀장	임선빈 (041-580-8078)